

ACAC

0:30	아오모리 예술센터는 공모전에서 우연히 우승했습니다.
0:38	아오모리 예술센터 부지에 가봤을 때, 얼마나 멋진 자연 안에 지어질지 가슴이 벅찼습니다. 자연 속에 지어지는 만큼 교통이 좋지 않아요.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.
0:57	아오모리 변두리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같이 만들어낼 목수, 미장공, 현장 기술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, 일본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건축 기술자 수준이 높아요.
1:17	이를 통해 이 예술센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매력적인 장소인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장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1:53	부지가 넓기 때문에 진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목조로 진입로를 만들었는데, 이 목조의 진입로는 봄부터 여름까지는 위에서 강한 빛이 들어오지만 겨울에는 눈으로 덮여 버립니다.
2:05	목조의 나무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눈의 아름다움과 여름의 강한 빛의 아름다움으로 전혀 다른 세계가 생기면 건축이 항상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2:28	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,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자연이 아름답고, 인간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. 숲 속, 그리고 눈 속에서 이러한 자연과의 대화 속에서 탄생하는 건축은 이곳에서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3:03	겨울(아오모리)은 일본의 기후 중 가장 혹독한 계절입니다. 일본은 아시아에서, 아니 오히려 세계적으로도 계절적 환경이 특이한 환경입니다.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달라요. 아오모리 부지를 보고, 이 숲 속에서 초록빛으로 가득 찬 건축을 만들고 싶다는 것은 숲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, 그 전에 전면에 연못을 만들어 연못에 비친 예술센터는 우지(宇治)의 평등원 봉황당 같은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

3:57	건축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, 건축을 경험한 사람이 그 감성을 계속 자기 마음 속에 남겨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.
4:13	예를 들어, 음악을 들은 사람이 그 멋진 음악을 계속 마음 속에 간직하듯이 건축 공간도 마찬가지로 경험한 사람의 마음에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
5:00	메인 스타디움은 원형입니다. 이 원형의 홀이라는 전시공간은 매우 사용하기 까다롭겠지만, 그곳에 조성된 자유로운 공간에 대해 자유로운 창작자는 어떤 형태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며 구성했습니다.
5:22	여기저기서 어떻게 건축 설계를 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. 저는 건축을 만든다는 것에서 자유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
5:37	중학교 2학년 때 살던 집이 단층이었는데, 2층으로 재건축 할 때 오신 목사 아저씨가 일을 시작하곤 완전히 몰두해서 일만 하시더군요.
5:54	그때 자기가 생각한 것에 전념하여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6:05	점심도 거의 먹지 않고 계속 일하는 모습을 보며 이 일은 분명 재미있는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, 나중에 이를 잊지 못해 건축 설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.
6:24	나라의 도다이어나 호류지를 보면서 이 건축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, 그와 동시에 그 건축을 체험하면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남는 그런 건축물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20살 전후로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습니다.
6:54	이곳은 아티스트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눈에 폭 감긴 건축물이 되었을 때,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본 적 없는 세계에 살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예술가들이 레지던스에 머물 것입니다. 그리고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, 그리고 그것이 자연에 둘러싸인 공간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거죠. 겨울에는 눈 속에, 여름에는 초록의 자연 속에. 그리고 그곳에 수면(水面)을 더함으로 역사 속으로 데려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.

7:44	<p>제가 중학교 때 경험한 목수 아저씨가 자유로움, 동시에 용기와 인내심으로 만들어 준 그때를 떠올리며, 건축은 재미있구나, 건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</p>
8:13	<p>역사를 생각할 때, 건축이라는 것이 인간이 자유와 용기, 그리고 역사라 생각해 다음 시대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장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, 건축을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</p>
8:33	<p>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올 때 감동이 있다면, 우리도 그곳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정도는 기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. 여기 아오모리에서만 할 수 있는 건축을 만들어 놓으면 아오모리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20년, 30년 이 건축이 계속 살아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</p>